

로동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98호 【루게 제 24976호】 주제 104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자

전강, 전군, 전민이 백두산칼바람에 뜻을 달고 조국해방 일흔륙과 당창건 일흔육 경축광장으로 기세 드높이 나아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임을 수여해 드린 3년을 성대히 맞이하고 있다. 우리의 혁명전열을 반석같이 다지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뜻깊은 견습졸을 앞두고있는 것으로 하여 이날의 의의는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주제 101 (2012)년 7월 1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공화국원수칭호를 수여해 드린것은 위대한 선군혁명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의 분출로써 충만되고 세계를 경탄시키는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획기적전환의 리적표로 새겨진 역사적사건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공화국원수로 높이 모시으로써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전승되어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필승의 기상이 더욱 힘있게 떨치게 되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그날부터 약동하는 젊음으로 충만되고 세계를 경탄시키는 대비약, 대혁신으로 수놓아지고있는것은 역사의 이념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백두산대국을 승리와 번영으로 이끄는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전세의 애국지사이다.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관복을 심장같이 걸고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승리의 한길로 여세를 나아가갈 불같은 맹세를 가다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없고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장광합니다.》 공화국원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 부름은 모든 승리와 번영의 기치로, 희망과 미래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원수로 높이 모시어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누릴 수 없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며 인민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원수로 높이 모신것은 백두산대국 만년만년만세에 특기할 대영사, 대행운이었다.

지난 3년은 우리 당과 조국, 사회주의의 위업의 전도와 관련된 관건적인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된 중대한 시기였다. 이 나날에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적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인민적품성을 지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이 뚜렷이 파시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는 혁명위업제승의 방대한 시대적 과제를 사소한 편향이나 우여곡절 없이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는 정치적기질을 낳았으며 민족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와 같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특출한 품모와 실력,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앞에 쌓아올린 업적으로 하여 세계의 한결같은 공인을 받은 국가명도자라 인부정치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3년간의 실생활 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따르는 길에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고 최후승리가 있다는것을 확신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는 백두산대국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끝없이 빛내어나가는 숭고한 혁명적도덕의 리의 빛이다. 수명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은 혁명위업 제승에서 더없이 중대한 문제로 나타난다. 숭고한 도덕의리에 기초한 혁명은 승승장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수명이 개척한 혁명위업이 중도반단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망쳐져 버린다는것이 사회주의의 운명사를 새겨주는 철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3년간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찬연히 빛내어주시기 위한 사업에 최대의 지성을 기울여 오셨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수령님들의 존함과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칙같은 의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첫 기수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백두산대국의 진로를 명시한 역사적선언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금수산태양 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더욱 훌륭히 꾸려주시고 전국각지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도록 하시어 모든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억연 드높이지 않는 성신작기둥,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셨다.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에 의하여 이 땅에서는 성스러운 태양의 명사가 줄기차게 흐르게 되었다. 김일성-김정일원형, 김일성, 김정일소년단과 같은 고귀한 부름에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넘원이 꽃피는 기념비적장조물들마다에도 우리 조국은 영원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의 존함을 빛내어나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적도덕의리에 세계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오늘과 같은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의 탁류속에 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수령의 존함과 위업을 전진적으로 계승하며 수령의 존함으로 위용발전하는 나라는 우리 공화국밖에 없다. 수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감과 모든 일관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있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 백두산대국의 미래는 끝없이 장광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는 백두산대국의 강대성과 불멸의 위력을 온 누리에 힘있게 떨치기는 백전백승의 령도이다. 지난 3년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은 국도에 달하였다. 민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 3년을 즈음하여 그이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장평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국방무관이 16일 인민부령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 대장 박영식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경축 에 빠도르 전국 준비위원회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경축에 빠도르 전국 준비위원회가 6월 26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회의원이며 국회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에파 르즈스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뜻깊은 날들을 맞으려 전국각지에서 경축행위, 영화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평안북도려단에서 맡은 구간의 2호물길굴복공사 빛나게 결속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평안북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려단이 맡은 2호물길굴복공사에 착수하였다. 지난 6월 초 물길굴복공사물공사를 끝낸데 이어 불과 40여 일만에 1000m가 넘는 바닥물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끝낸것은 2호물길굴복공사의 중요대상의 하나인 물길굴복공사를 이달중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 당창건 일흔육까지 백두산선군청년2호물길굴복건설을 끝내는 데서 려단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한 이곳 지휘관들은 청년돌격대원들의 애국충정의 열의가 드높은 공사실적으로 이어지도록 조직적지휘를 짜고들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려단정치부에서는 화신식정치사업과 직관선동, 기능예술선동활동을 령제적으로 벌려 전체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비상한 각오로 안고 일정에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려단의 모든 청년돌격대원들이 물길굴복건설의 능수 소문난 기량의 전투력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할 만만한 투지에 넘쳐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부물공사에서 편일 사람들은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리하여 20여일만에 수백m의 물길굴복공사복공사를 결속하여 승리한 첫 개가를 높이 울리었다. 려단장, 참모장을 비롯한 려단지휘관들은 려단의 전진속도이자 전반적인 물길굴복공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길이 라는것을 명심하고 《나를 따라 오십시오!》 구령이 화신의 기관차가 되어 돌격대원들을 위촉창조의 한길로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 한 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지하물길굴복공사 복공사를 결속하여 승리한 첫 개가를 높이 울리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제 4 차 전국로병대회가 진행된다

조국해방 일흔륙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육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견습졸을 맞으며 제4차 전국로병대회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고 있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고귀한 정신이 주체혁명의 새로운 100년대전군을 힘있게 추동하며 김정은시대의 영웅사사를 수놓아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국로병대회를 가지게 된것은 백두산대국의 선군혁명승리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경사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로병들은 한세대에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수심상상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의 주전,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영웅조선의 견습졸들과 벼슬의 진로를 창조하고 빛내이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역사의 준엄한 언명에도 로병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우리 혁명의 귀중한 사상성신적재부로 내세우시고 그들의 위훈과 공적을 조국청사에 값높이 새겨 주시었다. 제4차 전국로병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견습졸적 선군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려 하는 령도따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조국통일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천만군민의 드림같은 의지를 힘있게 파시하는 긍지높은 대회로 된다. 대회에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백두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려단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의 힘찬 돌격전에 의하여 바닥물공사의 속도는 마감단계에 들어와 초기의 1.8배수준에 달하는 하루 35m속도로 비약하였다. 완공의 그 시각 려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자기들의 맘이 진하게 슬베인 한구간한구간의 물길굴복공과 눈물속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저 멀리 평양하늘가를 우러러 승리의 만세를 높이 부르기도 하였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절세의 위인을 진두에 모신 백두산대국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 3혹을 맞으며

민족의 행운, 최대의 영광

약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내 나라에 뜻깊은 력사의 년월이 장엄히 새겨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3혹!

뜨거운 환희와 무한한 격정속에 3년전 7월의 그날을 송 nghung 돌이켜보신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정은 참으로 류다르다.

어제 그렇지 않았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민족의 그 위대한 행운이 있었기에, 남들이 지닐수 없는 최대의 그 영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해방 70주와 당창건 70돌을 경축하는 승리의 대축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더욱 높이 자랑하는 조국과 보따 행복한 매일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던가.

하기에 이 나라 천만군민은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한결같은 목소리로 심장속 깊은 곳에서도 활화산 마냥 터져나오는 위대한 부름을 다시금 뜨겁게 외친다.

우리 원수님,

3년전의 그날부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틀이 어떻게 스럼없이 부름과 따랐고 그 위대한 부름을 심장속까지 감응하며 날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아로새기며 영광의 오늘에 돌출을 거듭할 수 있었다.

우리 원수님, 이 무렵에 바로 우리 천만군민의 가장 뜨겁고 격정넘치는 열정의 력사가 비껴있고 이 나라의 영원한 승리에 대한 철의 전령사가 맥박치고있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시고 승리에서 승리로 폭풍처럼 그 영광적인 대진군, 용감하게, 눈부시게 조선을 떨치며 내 조국을 세계우에

높이도 떠올린 영광스러운 3년에서 이 나라 천만군민은 무궁변영할 선군조선의 승리의 배일을 더욱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자면 모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김정은동지를 잘 받들고 그를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우러러 부를수록 우리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이 넘치고 그 열 수를 안기는데도 그 열을 다 써내려가신 말씀이 더욱더 뜨겁게 안겨온다.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나의 사상 감정을 소박한 시구로 표현한다면 《홍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이다. ... 그것은 이 구절에 자기의 한몸을 깔고리 바쳐서라도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충고한 사상감정이 깰어있기때문이다. 실사 내가 슬피 지 짧은 생을 살다가 하여도 그 생이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는것이 나의 견해이다. ... 이것이 우리의 원수님의 위대한 심장속에 굳게 간직된 신조이다.
그 위대한 철의 신념으로 우리 원수님께서는 피눈물의 12월의 그 언덕에서 천만군민을 산악같이 불러일으키시였고 원수들의 가슴으로 풍광이 그 아래 추풍하는 어중이며 중의들을 꿰뚫어 단호히 짓물개서며 최후승리를 위한 대진군을 전두에서 이끄시였다.

그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철의 신념을 안으시였기에 우리 원수님께서는 민족의 존엄을 높고는 추호도 흥정 을 모르시였고 수평평평이 열을 견뎌 실행해나가기였으며 이 땅에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장엄히 아로새기시였다.

사람들이여, 숨인한 마음으로 삼가 돌이켜보시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맞고 보낸 무한한 헌신과 로고의 날과 달들.

코앞에 저들이 우글거리는 최전선에까지 몸을 나가시어 군인들의 포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해주시면서 사회주의 조국을 아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로폭화 되고있지만 우리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것은 인민군장병들이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조국의 초소들을 철벽으로 지키고있기때문이라고 절실히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찾으시는 인민군부대마다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별적의 선군외지가 담긴 기관총과 자동보총, 방안경을 안겨주시었고 백두의 혼연열풍이 나 빠지는 혼연장대에서 군인들의 종횡 전술훈련과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해 주신 위대한 선군명장의 탁월하고 세 실한 손질이 있어 우리 인민군대는 만능의 주체전법과 백승의 경험술을 소 유하고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식의 공적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무전막강한 불 배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더욱 떨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슬하에서 나날이 열매지는 무적의 혁명강군이 있기에 우리 인민은 마음놓고 아름다 은 행복과 미래를 설계하고 가꾸고 꽃피워가고있는것이다.

문수물놀이장건설을 인민군대에서 맡아 진행하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몸소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신다. 인민군건설자들에 대한 애정, 인민의 권익의 위력을 다시 한번 높이 떨칠수 있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넌,

원래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전 에 펼쳐나신 군민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문수물놀이장이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다고 이처럼 만복해하신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뜻 깊은 말씀은 그대로 이 땅에 인민의 기쁨넘친 행복의 웃음소리로 끝없는 메아리를 울리고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러고 나 버추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그토록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기적들이 창조되었으며 선군시대 대표하는 대가님비적창조물들이 수놓처럼 일떠설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유자살립집, 마 식빙스키장, 리듬춤마구라,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은하파학자거리, 평양산린 유년중앙연구소, 류정구강 병원, 육류야영영원... 선군조선은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명마루를 향하여 풍풍차달리고있다.

그 속에서 추추쳐오르는 하나하나의 창조물마다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의 자유이 뜨겁게 깰어있기에 그 위대한 인민은 언제나 경애하는 그이를 우리 원수님이라고 뜨겁게 부르며 그이의 명도를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충성의 오발을 안고있는것이 이다.

창조와 혁신의 동음높은 공장, 기업소들 둘러보아도 좋고 좋은 농 장들이 가보아도 좋다.
꽃피지 않은 큰물로 피해를 입던 인민들과 자리를 같이해보면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그 세해속에서도 조선이 더 높았다는 고마움에 젖은 목소리를 들을수

있고 창전지리의 살림집들에 둘러보면 그 배도 부어주시고 선군부대에 아기가 생기면 창전지리를 지나가다가 꼭 들리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신 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경치아름다운 연풍초기속에 훌륭히 일떠선 연풍과학자휴양소와 풍치 구련한 대동강기슭에 건설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유자살립집들에 둘러 보면 우리 원수님의 하수같은 사랑과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해나가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불타는 맹세를 들을수 있다.

어제 이틀이겠는가, 푸른물의 바다에서 받아안은 경애하는 그이의 정을 심장에 안고 위대한 강군님의 유년관찰을 위한 길에 아름다운 생을 물은 금공의 박태신 영웅과 연안평의 리창선영웅, 범람하는 세찬 물결속에서도 최후의 순간까지 절세의 위인들의 초상화를 지켜낸 선봉명의 한현정학생이 인조간 그 송고한 정신에서도 우리는 뜨겁게 새겨안을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이 땅에서 태어났다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라는 이 부름을 심장으로 리치며 그이의 품에 달려가 안길것이라는것을.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것은 그 무엇보다도 비길수 없는 우리의 행복이고 영광이다.
바로 그렇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뜻깊은 력사의 이날을 맞이하고있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확신이 이처럼 뜨겁고 열렬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머지않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세상에 안이 찬연히 꽃을 뿌릴것이며 그이의 위대한 품에 안긴 천만군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인민의 노래가사로 새겨진 영광

사람들 누구나 즐겨부르는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예술영화 《우리 리를 기다리시 말라》의 장면들이 떠올러오며 조국해방전쟁시기 피겨원수들의 공중대결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용감한 비행사들을 생각하게 된다.

수십년전에 나온 노래이지만 우리 비행사들은 이 노래를 즐겨 부르며 조국결사투사의 항로를 변함없이 날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은 강성국가건설에서 혁명적진군의 나팔수, 힘있는 추동력입니다.》

주제 103(2014)년 5월 5일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에 대하여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자신께서는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 말씀을 정중히 받아안던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장에서 비행사들을 격려하여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였다.
대회장을 꼭 제은 우리의 영웅한 전투비행사들을 천군하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분재신묘라도 절조망도 없는 하늘에서 조국의 영광을 믿을수있게 지켜가고있는 우리 비행사들의 애국적인 신성과 남모르는 수고를 온 나라가 알고모내내워주고 동무들이 지니고있는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전국의 모든 장병들이 따라배우게 하자는데도 이런 대회의 목적이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대회장에 울리는 우리 원수님의 노래는 음성들을 들으며 비행사들은 온 우주를 그머안은듯싶어 높뛰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였었다. 이 노래는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에서도 불려왔었다.

본사기자 정순학

그날의 대회장에 일렁이던 감격과 걱정의 파도가 다시금 안겨와 인민군지휘성원들의 가슴은 설레이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노래가사를 쓴 작가를 알려주시며 1절과 2절 가사는 우리 시문학의 최정점에 오른 가사이라고 평가해주시였다.

가사에서 조국을 크나큰 나무와 심장에 비유하고 매 개인은 나무 잎사귀와 피방울에 비유하였는데 절절하고 생동한 비유라고 하신 그이께서는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은 혁명가의 인생관을 짙막한 가사에 집대성하였다고, 다시 정하면 혁명가의 인생관이 어떤것인가를 형상적으로 표현한 가사의 표본이며 정말 경이로운 드림만 한 가사이라고 하시면서 이 노래는 모공이나 해설모임을 따르는데 있어도 온 나라가 부르고 있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노래를 불러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팔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노래를 높이 부르며 비행사들처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순간을 산내도 없었게 살 맹세로 새겨 고쳐주시고있다.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간주하고 가장일보다 나라일을 더 중시하며 여기는 불타는 애국심과 영웅적비행정신의 체현자들로 비행사들을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 노래가사와 함께 비행사들의 사상정신세계는 오늘 시대의 최정점에 높이 올라 빛을 뿌리고있다.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비행사들을 전국의 모든 장병들이 아니라 우리 시대 혁명가들의 앞길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은 이 한편의 노래가사에도 얼마나 뜨겁게 여러 있는것인가.

이 노래는 오늘 천만군민모두의 고귀한 인생방으로, 죽어도 변치 않는 신념의 주제가 되고있다.

본사기자 한영민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을 키우시던 날에

지휘관들이 훈련의 앞장에서

지난해 1월 어느날이였다. 어느 한 부대의 전술 훈련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백연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군인들의 훈련을 지도해주시였다.

전술훈련은 매우 극악한 조건에서 진행되였다. 하지만 결전의 하루를 위하여 훈련의 백날, 천날을 구출물로 수놓은 전투원들은 차찬말들을 능숙히 극복하면서 적진을 베라같이 타격하였다.

전투원들이 맡겨진 전투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정시에 훈련을 잘한것이 알린다고,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훈련을 잘

유능한 전투비행사들로

언제인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녀성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 때였다.
조종간을 역세게 틀어잡고 하늘로 날아오른 녀성비행사들은 자기들이 편마른 비행술을 남

행하였는데 만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인가주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지휘관들이 군인들의 앞장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투를 지휘하였기때문에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훈련에 참가한 부대지휘관들을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그이의 과분한 치하를 받아안은 부대지휘관들의 가슴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안성에 바치신 자신의 헌신과 로고는 무엇이든 부대의 전투정지훈련을 지도하시 때였다.

훈련을 시작할때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떨어지자 천지를 진감하는 폭풍과 함께 전술로켓들이 세한 불꽃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발사 권좌를 지도하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에는 전작같이 현대전에서 그 어떤 화려하진무도 막힘없이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었다고, 전술준비를 맞으며 처진 이번 화려하게훈련의 폭풍은 전작과 의 싸움준비안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 파도 같다고 기쁨에

신념과 의지의 선언

지난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켓 트랄사훈련을 지도하시 때였다.
훈련을 시작할때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떨어지자 천지를 진감하는 폭풍과 함께 전술로켓들이 세한 불꽃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발사 권좌를 지도하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에는 전작같이 현대전에서 그 어떤 화려하진무도 막힘없이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었다고, 전술준비를 맞으며 처진 이번 화려하게훈련의 폭풍은 전작과 의 싸움준비안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 파도 같다고 기쁨에

우리 비행사들을 제일로 여기고 내세워주시며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고 비행술을 높이는데 나서시는 명철한 방안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이시였다.

항으로 그이의 탁월한 명도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 잊지 못할 하나의 이야기가 돌이켜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김일성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 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가 될 것이며 김정은동지의 유추를 받들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것이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을 새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동지애의 력사가 이 땅에 새겨졌으며 나는 그날의 그날과 더불어 이 땅에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조선속도창조의 날과 달들이 장엄히 아로새겨지고있다.

나는 추추치는 격정속에 다시금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둘러 보았다. 건설장에서는 정제선동의 복소리 드놀고 석재며 골재를 실은 자동차가 꼬리를 잇고 있었다. 과학기술전당은 시간이라고 크게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었다.

그 모습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의미로 풀이로 형성변형하는 우리 조국의 축소판인듯싶어 나의 마음은 마냥 후두위울었다.

본사기자

뜻과 정을 같이하는 동지부대, 전우부대로

7월의 하늘가에 나뭇기는 최고사령관에게 찬란히 빛나는 원수님을 바라보는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원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뜻깊은 7월 17일을 맞은 인민의 심장마다에 경애하는 그이께서 하시 말씀이 다시금 세한 격정을 불러온다.

지휘관과 병사는 다같은 최고사령관의 귀중한 전우들이라고, 우리가 믿는것은 대포나 로켓을 비롯한 그 어떤 현대식무장장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이며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도 있고 최고사령관도 있는것이라고...
믿음을 담야, 정을 담야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 잊지 못할 하나의 이야기가 돌이켜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김일성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 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가 될 것이며 김정은동지의 유추를 받들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것이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을 새우신 우리 원수님께서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동지애의 력사가 이 땅에 새겨졌으며 나는 그날의 그날과 더불어 이 땅에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조선속도창조의 날과 달들이 장엄히 아로새겨지고있다.

나는 추추치는 격정속에 다시금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둘러 보았다. 건설장에서는 정제선동의 복소리 드놀고 석재며 골재를 실은 자동차가 꼬리를 잇고 있었다. 과학기술전당은 시간이라고 크게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었다.

그 모습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의미로 풀이로 형성변형하는 우리 조국의 축소판인듯싶어 나의 마음은 마냥 후두위울었다.

본사기자

같이하신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동지애의 력사가 이 땅에 새겨졌으며 나는 그날의 그날과 더불어 이 땅에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조선속도창조의 날과 달들이 장엄히 아로새겨지고있다.

나는 추추치는 격정속에 다시금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둘러 보았다. 건설장에서는 정제선동의 복소리 드놀고 석재며 골재를 실은 자동차가 꼬리를 잇고 있었다. 과학기술전당은 시간이라고 크게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었다.

그 모습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의미로 풀이로 형성변형하는 우리 조국의 축소판인듯싶어 나의 마음은 마냥 후두위울었다.

본사기자 정순학

동지들이 있기에 김정은이도 있고 동지들이 없으면 김정은이도 없다는것이 나의 사상적신조이며 나는 곧 그대이고 그대는 곧 나는 동지애에 대한 믿음, 이것은 나의 동지애라고 하시며 뜨거운 동지애의 력사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

항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통치관술 그대로 지니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지부대가 되겠다고, 동지들속에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든든 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을 미쁘게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앞으로 비행기를 동반하는 격전장에서 혁명동지, 혁명전우들을 아껴야 한다고, 특히 지휘관들은 지도도에 굶는 화살표 하나하나에 수천, 수만명에 달하는 병사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작전과 전투를 책임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의 심장의 벽을 새겨져 두드렸다.
자본가들은 돈을 모으는 재미가 별 재미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동지를 모으는 재미가 회심의 띠이고 재미였다. 동지 한명을 얻는 때의 희열을 어찌 황금덩이 하나를 얻을 때의 기쁨에 비길수 있었는가 하고 하시면서 동지들을 위해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으신 우리 수령님,

동지, 전우!
그것은 천만군민과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만민을 데려오신 동지부대, 전우부대 그 끈기 결속되고 우리 조국방우에 평등자와 인민의 플랫폼에 같은 수 없는 혼연일체의 위대한 화폭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금분

적들의 총구가 서사리고있는 최전선포대로 서슴없이 나가시어 군민들에게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고 떠나간 전사들의 묘수를 되시어 그들모두에게 영생하는 삶을 안겨주시였으며 이 땅에 생을 온 천만사람들을 한층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우리 원수님,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없이 작은 목숨을 타시고 최대열정적인 심초소를 찾으시어 정을 주시고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은 환호를 울리며 너도 나도 사슴치는 바다에 뛰어든다.

그 품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고 혁명할수도 없다는 억척의 신념,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가려는 불변의 의지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차란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온 사회가 뜻과 정을 같이하는 동지부대, 전우부대 그 끈기 결속되고 우리 조국방우에 평등자와 인민의 플랫폼에 같은 수 없는 혼연일체의 위대한 화폭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금분

7월 17일에 대한 생각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매칠전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찾았던 나는 불이 번쩍 나게 일손을 다그치는 한 군민건설자에 그레 따름을 돌이켜보고 하였다. 그때 자는 웃으며 말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받으신 7월 17일은 높은 로적적성으로 맞이하려 는것은 나만이 아닌 공사장의 전체 군민들과 건설자들의 한결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일손 을 잡지도 멈출수가 없습니다.》

흔히하 하는 말이었지만 그 의미를 새겨보는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7월 17일!
어찌하여 이날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그리도 뜨겁게 자리잡고있는것인가.
남너로 소 누구나 우리 원수님이여 부르며 따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그이에 대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책이나 이야기를 통하여 알지 않았다. 이 나라의 매 가정, 매 사람을 에게 속속들이 스며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 군대 와 인민으로 하여금 그이께서 계시기에 조국의 영원한 승리와, 끝없는 인민의 행복도 있다 는것을 심장마다에 철리로 새겨 안게 하였다.

하기에 이 나라 천만군민은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시작 되는 해의 전승절을 앞두고 그에게 삼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렸건

아니던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날을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정을 더욱 깊이 새겨안은 맹세의 날로 여긴다.
그렇다, 력사의 그날과 더불어 이 땅에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조선속도창조의 날과 달들이 장엄히 아로새겨지고있다.
나는 추추치는 격정속에 다시금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둘러 보았다. 건설장에서는 정제선동의 복소리 드놀고 석재며 골재를 실은 자동차가 꼬리를 잇고 있었다. 과학기술전당은 시간이라고 크게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었다.

그 모습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의미로 풀이로 형성변형하는 우리 조국의 축소판인듯싶어 나의 마음은 마냥 후두위울었다.

본사기자

어찌하여 이날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그리도 뜨겁게 자리잡고있는것인가.
남너로 소 누구나 우리 원수님이여 부르며 따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그이에 대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책이나 이야기를 통하여 알지 않았다. 이 나라의 매 가정, 매 사람을 에게 속속들이 스며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 군대 와 인민으로 하여금 그이께서 계시기에 조국의 영원한 승리와, 끝없는 인민의 행복도 있다 는것을 심장마다에 철리로 새겨 안게 하였다.

하기에 이 나라 천만군민은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시작 되는 해의 전승절을 앞두고 그에게 삼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렸건

아니던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날을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정을 더욱 깊이 새겨안은 맹세의 날로 여긴다.
그렇다, 력사의 그날과 더불어 이 땅에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조선속도창조의 날과 달들이 장엄히 아로새겨지고있다.

나는 추추치는 격정속에 다시금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둘러 보았다. 건설장에서는 정제선동의 복소리 드놀고 석재며 골재를 실은 자동차가 꼬리를 잇고 있었다. 과학기술전당은 시간이라고 크게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었다.

본사기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모잠비끄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 방문

하여온 안토니우 이나세우 주 니오르 주조 모잠비끄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신룡철 외무성 부상조 모잠비끄대사관 성원 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신념의 맹세 하늘땅에 차념한다. 본사기자 역음

백두대지에 로동당만세 소리가 울린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흥단》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 근대와 인민이 부르는 노래 《가리리 백두산으로》에는 《이 땅에서 기적들과 행운을 불러 영웅조선 승리의 길 향도하는 곳》이라는 명구절이 있다. 우리 조국이 이룩한 전설같은 기적과 승리가 반영된 명구를 부를 때면 우리 근대와 인민은 마음속으로 백두산과 더불어 부흥하는 대흥단군도의 모습도 그려보게 된다.

대흥단군은 항일전线的 나날 일제놈들에게 멸적의 불벼락을 내리고 우리 인민에게 조국해방의 서판을 함께 비쳐준 혁명의 전구이다. 흰눈 덮인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성스러운 이 땅에서 지난 기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자랑찬 번영의 서사가 수놓아졌던가.

강에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성을 애국의 함마음으로 불러오시며 협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정은 우리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반조성을 마련하였으니...》

최근 4.15문화장편소설 내용은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흥단》(김동욱 작)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장군님을 충정으로 받들어온 인민들과 인민들이 애국적 헌신과 희생으로 인민들을 위하여 대흥단군에서 일어난 감동사건들을 취급한 작품이다.

장편소설은 백두대지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반영한 형이 있어 감동사건처럼 가지는 거대한 사회정치적의의와 그 승리의 요인을 밝히는데 형식의 초점을 맞췄다.

우리 당이 감동사건형의 포성을 울릴 당시는 원수들이 가스류에도

대공상을 당한 내 나라가 붕괴된다고 하던 3년이 지난 때였다. 이 시기 백두산혁명군들의 군사적위력에 걸맞은 적들은 자연재해로 하여 조성을 식량난을 우리 제도를 허물수 있는 지대처럼 여기고있었다. 또한 적들은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면 인민생활은 병폐되며 나아가서 사회제도의 붕괴라는 총각점에 이르러 버리고 떠벌어가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백두산지구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 지휘관들에게 1930년대에 역경을 승경으로 전환시킨 신사임당이 수레를 끌고 오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전구 대흥단군에서 식량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것을 선언하셨다.

이날 백두의 칼벼락을 맞으시며 대흥단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그 덕을 보고있는 이곳 인민들과 근로자들의 사업성과를 평가해주시며 앞으로 대흥단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이 발사된 해인 1987년(1988년 10월 1일) 도시는 대흥단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에서 품어내려오던 애국적 애의로 대흥단군에서 일어난 감동사건형에 관한 작품을 썼다.

장편소설은 백두대지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반영한 형이 있어 감동사건처럼 가지는 거대한 사회정치적의의와 그 승리의 요인을 밝히는데 형식의 초점을 맞췄다.

우리 당이 감동사건형의 포성을 울릴 당시는 원수들이 가스류에도

인민생활문제를 푸는 성스러운 투쟁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배어 세가지 못한 인민들과 연구자들은 해가 바뀌도록 다수확품종 감자를 풍토순화시키지 못하게 되자 신심을 잃고 종자를 포기할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근의 책임인으로부터 이런 의견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들부터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다수확품종 감자도 지켜낼수 없고 당에서 일단 하라고 하면 무조건 전는 혁명적근신정신을 신념화하지 못하면 감자농사혁명의 선구자도 될수 없다고 준철히 일깨워 주시며 자신께서 대흥단군의 감자농사를 지휘하시겠다고 교시하셨다.

혁명의 중추를 받들며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하여 그토록 대흥단군의 감자농사를 중시하시었던가.

대흥단, 이 땅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감자농사를 지으시던 땅이었으며 전경이 한강이던 때에 개척자들을 보내주시고 전후에는 손수 삼으로 파주시며 백두대지는 불모지라고 하던 나날 높들의 감자를 귀중히 여기시며 감자농사혁명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결을결을 어버이수령님께 의탁하여 지켜주고 지켜내셨으며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인민에게 웃음을 준 땅이었다.

이렇듯 귀중한 백두대지에 어버이수령님의 구상과 념원을 최상의 농지에서 실현할때 그 나머진 감하는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 퍼진다라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결코 험한 전진길을 걸으시면서도 대흥단군의 감자농사

를 정력적으로 지도해 주신다. 하여 대흥단군은 마침내 감자농사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통상총을 부르게 되며 과학농법의 새로운 장을 펼쳐 놓게 된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감자농사혁명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완벽하게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진두지휘하신 고결한 총정과 애국헌신의 위업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밝히고있다.

장편소설은 격동적인 선군시대에 대흥단군에서 꽃피는 가치로서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감자농사를 거창한 혁명투쟁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세계를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자농사혁명을 일으키는 나날에 제일 중시하셨던 것은 사랑 문제였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감자농사혁명을 구상하시면서 제일먼저 대흥단군 책임인민인 김일성의 운명에는 깊은 관심을 돌리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록 사업방법과 작용에서의 흠이 있지만 당정책 관점에서 중도반란을 모르는 그의 성품을 귀중히 여기시며 감자농사혁명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결을결을 손잡아 이끌어 주셨다. 한편 믿음은 전사들의 운명을 끝까지 보살피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파오로 벌 하가를 매에는 준철히 일깨워주시고 그가 과학기술을 배워가게 하는 것을 알게 되시었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더 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 주셨다.

소설에는 대흥단군에 파견된 수많은 인민군 김일성의 성장과 그의 생활을

천어머리의 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대군인들을 대흥단군에 파견하신것은 폭풍속에서도 백두대지를 가르는 참된 주인이 되라는 믿음이었고 기대였다.

그 믿음과 기대를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진정한 영웅작업으로 하여 대흥단군에서 역사적인 대흥단 전투 60돐을 맞으며 진행하게 되어있던 체육경기기를 취소하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중앙의 인민들이 현지에서 내려가 뜻깊은 그날을 성대히 기념하도록 온정 어린 조치까지 취해주셨다.

감자농사혁명을 통하여 백두대지의 주인공들 백두의 신념과 의지를 지닌 불굴의 투사들로 준비시키기 위해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흥단군안의 전체 인민들의 념원을 헤아려 항일전线的 군복을 입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무산지 구두투승리기념탑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하셨다.

작품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제대군인 안해의 청을 헤아려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감동깊은 이야기를 통하여 백두대지의 후대문제를 혁명의 전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보고 대처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세계를 중심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장편소설은 어버이수령님의 념원과 구상을 실현하였을것을 우리 혁명의 근원적으로 내세우시며 혁명의 길에 걸맞는 난관을 앞장서 헤쳐나가는 것을 성스러운 의무로 간직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장군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기적들과 행운을 불러오시는

학생소년들의 시와 노래 무대 《대동강의 해맞이》 진행

불라는 신념과 맹세가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명작 《대동강의 해맞이》를 발표하신 55돐에 즈음한 학생소년들의 시와 노래 무대가 16일 청년동맹학생회에서 진행되었다.

무대에 나선 평양시 평천구역 봉담동 정성순은 주제49(1960)년 7월 16일 대동강반에서 즉흥시 《대동강의 해맞이》를 읊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열정을 넘치신 모습이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고 하면서 이 시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내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시려는 그이의

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나가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시랑송 《찬란한 대동강의 해맞이》, 《영원한 우리 해맞이》는 참가자들에게 백두에서 시작된 선군혁명만나리길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갈 절세위인의 불멸의 신념과 열정의 세계를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 《혼성소향장 《혁명의 계주봉》 등의 품목들이 이어 무대에 나선 출연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주시려는 경에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되게 받드는 선군시대의 청년전진들을 더는 잊지않고 애국열의를 다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장군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기적들과 행운을 불러오시는

학생소년들의 시와 노래 무대 《대동강의 해맞이》 진행

불라는 신념과 맹세가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명작 《대동강의 해맞이》를 발표하신 55돐에 즈음한 학생소년들의 시와 노래 무대가 16일 청년동맹학생회에서 진행되었다.

무대에 나선 평양시 평천구역 봉담동 정성순은 주제49(1960)년 7월 16일 대동강반에서 즉흥시 《대동강의 해맞이》를 읊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열정을 넘치신 모습이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고 하면서 이 시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내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시려는 그이의

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나가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시랑송 《찬란한 대동강의 해맞이》, 《영원한 우리 해맞이》는 참가자들에게 백두에서 시작된 선군혁명만나리길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갈 절세위인의 불멸의 신념과 열정의 세계를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 《혼성소향장 《혁명의 계주봉》 등의 품목들이 이어 무대에 나선 출연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주시려는 경에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되게 받드는 선군시대의 청년전진들을 더는 잊지않고 애국열의를 다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장군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기적들과 행운을 불러오시는

학생소년들의 시와 노래 무대 《대동강의 해맞이》 진행

불라는 신념과 맹세가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명작 《대동강의 해맞이》를 발표하신 55돐에 즈음한 학생소년들의 시와 노래 무대가 16일 청년동맹학생회에서 진행되었다.

무대에 나선 평양시 평천구역 봉담동 정성순은 주제49(1960)년 7월 16일 대동강반에서 즉흥시 《대동강의 해맞이》를 읊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열정을 넘치신 모습이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고 하면서 이 시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내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시려는 그이의

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나가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시랑송 《찬란한 대동강의 해맞이》, 《영원한 우리 해맞이》는 참가자들에게 백두에서 시작된 선군혁명만나리길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갈 절세위인의 불멸의 신념과 열정의 세계를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 《혼성소향장 《혁명의 계주봉》 등의 품목들이 이어 무대에 나선 출연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주시려는 경에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되게 받드는 선군시대의 청년전진들을 더는 잊지않고 애국열의를 다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이 깃들었다고 하면서 한결음도 물러설수 없다고 절정처럼 말한다. 당정책을 당원의 순결한 탐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대흥단군에 파견된 제대군인들은 다수확품종감자의 풍토순화를 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복한 교시를 주시었을 때에는 이 간곡한 자기들도 적극 참가하겠다는 열렬히 결의해나선다.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당중앙과 발걸음을 함께 해나가는 시대의 전령들의 모습은 우리 인민군들과 당원들에게 중요한것을 깨우쳐주고 있다.

현시기 우리 당은 모든 부문, 모든 단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교시를 배심없이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요,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는데서 우리 인민들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지상의 전 투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전격의 돌과 투를 열이여끼며 그 모든것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정확히 집행하는 결사관철의 투쟁사령이다.

감자농사혁명을 일으키는 나날에 이룩된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변함 없이 높이 발휘해나가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의무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흥단》은 천만민들의 가슴마다에 백두대지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게 새겨주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벼락정신으로 삼대 투쟁할때 최후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진다는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게 될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흥단》은 천만민들의 가슴마다에 백두대지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게 새겨주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벼락정신으로 삼대 투쟁할때 최후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진다는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게 될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흥단》은 천만민들의 가슴마다에 백두대지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게 새겨주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벼락정신으로 삼대 투쟁할때 최후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진다는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게 될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흥단》은 천만민들의 가슴마다에 백두대지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게 새겨주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벼락정신으로 삼대 투쟁할때 최후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진다는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게 될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흥단》은 천만민들의 가슴마다에 백두대지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게 새겨주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벼락정신으로 삼대 투쟁할때 최후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진다는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게 될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흥단》은 천만민들의 가슴마다에 백두대지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게 새겨주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벼락정신으로 삼대 투쟁할때 최후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진다는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게 될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흥단》은 천만민들의 가슴마다에 백두대지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게 새겨주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벼락정신으로 삼대 투쟁할때 최후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진다는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게 될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흥단》은 천만민들의 가슴마다에 백두대지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게 새겨주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벼락정신으로 삼대 투쟁할때 최후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진다는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게 될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흥단》은 천만민들의 가슴마다에 백두대지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게 새겨주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벼락정신으로 삼대 투쟁할때 최후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진다는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게 될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흥단》은 천만민들의 가슴마다에 백두대지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게 새겨주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벼락정신으로 삼대 투쟁할때 최후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진다는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게 될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흥단》은 천만민들의 가슴마다에 백두대지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게 새겨주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벼락정신으로 삼대 투쟁할때 최후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진다는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게 될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흥단》은 천만민들의 가슴마다에 백두대지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게 새겨주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벼락정신으로 삼대 투쟁할때 최후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진다는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게 될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대흥단》은 천만민들의 가슴마다에 백두대지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게 새겨주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벼락정신으로 삼대 투쟁할때 최후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진다는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게 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의 대표단, 방문단 경모의 정표시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6일 온종일 제일 본조선상공회합회 부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상공회합회

대표단과 최봉태를 단장으로 하는 총련조선대학과 학생조국방문단 이경모의 정표시

그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반조성을 마련해

주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애우함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조선중앙통신】

3대혁명전위의 영예를 펼쳐

정주기관차대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며 기관차수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과 기관차승무원들의 기술능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앞선 방법들을 연구완성하고있다.

소조원들이 기술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며 기관차수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과 기관차승무원들의 기술능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앞선 방법들을 연구완성하고있다.

소조원들이 기술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며 기관차수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과 기관차승무원들의 기술능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앞선 방법들을 연구완성하고있다.

유럽의 여러 정당출신 정치인대표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여러곳 참관

영국에 이바당출신 전 수상의 판방실장이었던 조나란 로벨

국제경제기구 최고집행관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의 여러 정당

출신 정치인대표단이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참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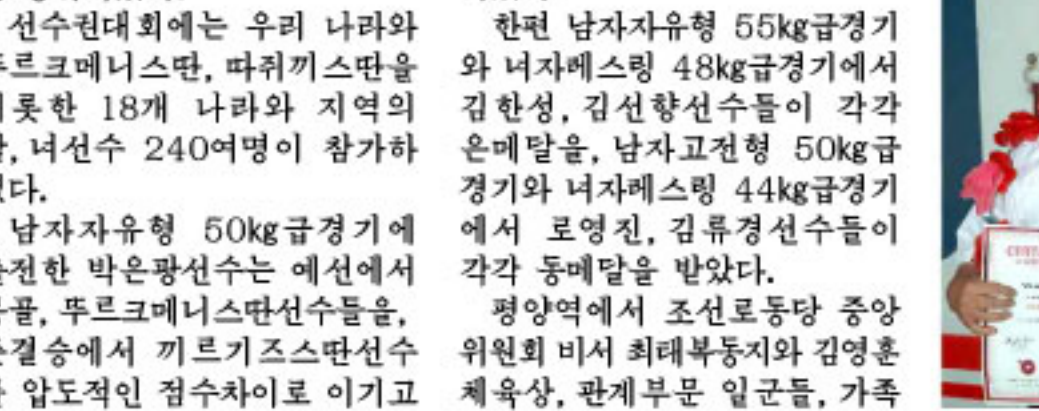
유럽의 여러 정당출신 정치인대표단 원산악아현, 애육원 참관

2015년 아시아청년레스링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2015년 아시아청년레스링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16일 귀국하였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만타에서 진행한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동메달 각각 2개를 땀 흘려하였다.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그는 백두의 넘과 기상을 지닌 사상상징적인, 육체기술적강자로 준비하기 위한 훈련과정에 면마해 온 특기와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여 결승경에서 인디안선수들 누르고 영예의 제1위를 땀 흘려하였다.

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고 돌아오는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적을 축하해주었다.



영예로운 귀국 선수

총련의 대표단, 방문단을 도착

온종일 제일본조선상공회합회 부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상공회합회대표단과 최봉태, 김세정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총련조선대학과 학생조국방문단들이 1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정권의 활짝 열려야 대동강의 물결이 푸르게 흐른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 하여 전체 인민이 체육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체육의 생명이다.》

자그마한 철도역인 평태역 출입원들이 즐겨하는 체육종목의 하나는 탁구이다. 날마다 체육시간이 되면 인민군들과 출입원들이 약속이나 한듯 실내탁구장에 모여와 치열한 탁구경기를 벌이고 한다.

그도그렇듯이 역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난관이 얼마 되지 않은 출입원들이 이르기까지 대동강의 탁구공이 말해 주고 있다. 하다면 이 역의 출입원들은 원래 탁구기술이 높고 체육열기가 남다른 사람들로 꾸려진 것이다. 그렇기 없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전문탁구 선수들이 리용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꾸려진 실내탁구장에 갖추어져있는 수백알의 탁구공이 말해 주고 있다.

이것 역에서 지난해에 2중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때였다. 이 시기 역에서는 대

동강의 물결이 푸르게 흐른다

동강의 물결이 푸르게 흐른다

동강의 물결이 푸르게 흐른다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 하여 전체 인민이 체육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체육의 생명이다.》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수백알의 탁구공이 전하는 사연

